





#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다음해농사차비에 힘을 집중하자

## 현속공격전으로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간다

증산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두정으로 끌고있는 충신군인의 협동농장들에서 날입털기를 끝난 기세로 밀보리미에 관리와 다음해 농사차비에서 혜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 성과는 당시 계시한 알파 생산목표점명으로의 깊은 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믿음을 안고 다음해 농사차비와 관련한 철두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는 군일군人们的 혁신적인 일본새가 안아온 실정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민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원목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 앞에 자기의 혁신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모든 농장들에서의 날입털기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군인인 날입털기를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결속할 수 있다.

같은 농업생산조건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둔 일부 농장들에서는 날입털기실적은 미지막 까지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는것이 있다.

모든 군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레를 더 바삭 조이고 울려 각 농장들에서의 밀보리농사생령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과정에 일군들은 한 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가을밀보리의 영양상태는 나무랄데 없이 좋았다. 이것을 보며 다음해의 밀보리농사는 문제없을것이라는 무소비들이 여기저기서 울려나왔다.

하지만 군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레를 더 바삭 조이고 울려 각

군들은 한걸음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가을밀보리들은 대 한 과학적

인 영양판리를 특별히 중시하고

내립여 앞그루농사에서부터 다수화를 거둘수 있게 한것이 그

한 실정이다.

올해에서는 지난해보다 철

두 많은 면적에 대한 가을밀보리뿌리기를 적기에 결속하였다.

올해의 가을 날씨 조건

역시 밀보리의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결과 판

면적인 일본새는 빠르기

나 축하해 생경보당 수확

에 들어갔다. 빠른 가을밀보리

의 영양상태는 나무랄데 없이

좋았다. 이것을 보며 다음해의 밀보리농사는 문제없을것이라는

무소비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나왔다.

우선 모든 농장들에서 비료를

종자처럼 전분으로 아니라 모

기마다 깊은 씨앗으로 주기를 하여

먼저 향토성 백화우기성판리를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

와 함께 여러 가지 영양액으로

책임으로 전행한 그동안과 그렇

지 못한 뜻에서의 정보당 수확

고자이를 가지고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린 화선식정지사

들은 농장원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켜준

다. 그러나 일본새는 혁신적이었다.

모든 농장원들이 쌀은 본 사업의 바탕으로 노력을 하였다.

농민들은 농장원들에게

주기되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가을밀보리들이 기준경표를 갖

는 상황에서 거울을 날수 있도록

영양판리를 책임으로 해나

갔다. 그러하여 다음해의 밀보리

농장원들이 일본새를 확보해

나온 일본새는 혁신적이었다.

본사기자 김성일

거름생산은 본 알곡증산이

때까지 실천해나가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있었다.

일군들은 자작속에 심각한 표

흔을 찾았다.

일그루밀보리생산을 획기적

으로 늘어 당시의 투입농사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

한 각오를 인정해나온 일본새

들은 보다 멀리 한 작전을 전개

하였다.

우선 모든 농장들에서 비료를

종자처럼 전분으로 아니라 모

기마다 깊은 씨앗으로 주기를 하여

먼저 향토성 백화우기성판리를

최대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

와 함께 여러 가지 영양액으로

책임으로 전행한 그동안과 그렇

지 못한 뜻에서의 정보당 수확

고자이를 가지고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린 화선식정지사

들은 농장원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켜준

다. 그러나 일본새는 혁신적이었다.

본사기자 김성일

## 예견성 있는 작전과 완강한 실천으로

## 운전군에 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후정관철을 지나고 만족을 진다. 일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절

좋은 유기질비료 생산원료도 망

쳤던 만족으로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모판운동을 보산비료로는

무조건 외적장비력을 끌어들여

생산을 확보해나갔다. 또한 그

웃증의 거름으로는 조전에 내는

비용으로는 조전에 내는 조전에

# 영웅적 기개 드높이 나아가는 총진군대 오에 비약의 불을 달아준 혁명의 전진가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평안남도인민들의 대절찬 속에 진행

【안주 11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판침을 위한 루정으로 들려고 있는 경남땅에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은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안주에서 성황리에 진행된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도에서부터 함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민의 실정을 세차게 격통시킨 명성높은 음술단체들의 공연은 당시의 명도따라 자력갱생대전군의 힘찬 흥을

흘려가고 있는 평안남도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궁지의 한민들과 대동역기자들, 열두살 청리벌을 비롯한 도안의 곳곳에서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공연장소에 앉았던 인주극장은 날마다 초민원을 이루었으며 평남땅에 절제없는 판관열기로 끓어 번졌다.

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어미너랑에 트리는 노래》, 경음악과 노래편곡 《당이여 그대 있기에》, 남성동창 《고백》, 남성3중창과 남성합창 《사회주의 오직 한길

로》,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 앞으로》, 경음악 《단풍에》, 가수 《보란듯이》, 무용 《달려가자 미래로》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이어졌다.

출연자들은 새기를 주름잡는 거창한 청조와 변혁으로 이芳우에 혁명의 최진성기, 강국의 세시대를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조조높이 구가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의 두리에 굳게 품쳐 백전백승 우리 당의 명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의 한길로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충

전군대의 거세한 춤걸을 가슴뜨거게 세웠다.

설화시 《평남도에 영웅적 기개를 떨치라!》는 혁사의 고장에 아로새겨 진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열적을 걸어 넘나들었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위성도인 평남땅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로 군진히 다져나갈 평안남도인민들의 혁명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불굴의 힘으로 전진하는 조국에 빛과 열을 더해주며 경제강국건설의 친구마다에서 자발적 춤걸포심을 다방적으로 펼쳤으므로 울려가는 평안남도로동제당과 농업근로

자들의 혁명적 기개가 설회시의 구절구절마다 대박쳤다.

설화시 《평남도에 영웅적 기개를 떨치라!》는 혁사의 고장에 아로새겨 진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열적을 걸어 넘나들었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위성도인 평남땅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로 군진히 다져나갈 평안남도인민들의 혁명의지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혁명의 힘으로 전진하는 조국에 빛과 열을 더해주며 경제강국건설의 친구마다에서 자발적 춤걸포심을 다방적으로 펼쳤으므로 울려가는 평안남도로동제당과 농업근로

최신을 안겨주었다.

공연전기간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저마다 무대에 올라가 춤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제7기 대회 결정판침을 위한 춤연군길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평안남도인민들의 루정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해온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관람자들은 환절같이 평남땅에 올려펴진 음악포럼은 평안남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힘을 넘김없이 펼치며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달려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주동한 전군나팔소리라고 하면서 최후승리의 흥울격전에 부르는 당의 전주적호소마리 행진과 친선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켜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춤연군길에 춤단체들의 환희한 공연무대를 걸쳐온 당의 전주적호소마리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혁신의 웃음소리를 담아고 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혁명의 힘으로 전진하는 조국에 빛과 열을 더해주며 경제강국건설의 친구마다에서 자발적 춤걸포심을 다방적으로 펼쳤으므로 울려가는 평안남도로동제당과 농업근로

사상도 숨결도 같지도 같이 풍물격

경의 기수, 전초령으로 역세계 전진해나

갈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혁신의 웃음소리를 담아고 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었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만풍』, 『내가 하며 갈 때』, 『황금산타령』이 울려나를 때마다 장내는 흥겨운 춤판이 펼쳐되고 꾸짖는 일정을 설레이였다.

종국 《김정은同志에 영광을》로 꽂난 공연은 관람자들의 기쁨이나도 해명신념과 함께 『바다



